



김상래 | 삼육대

1. 문제의 제기

모든 텍스트에는 독자들을 설득하려는 문학적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독자들은 그러한 텍스트의 전략에 설득당하여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이데올로기²⁾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텍스트에 대한 문학 비평적 접근은 텍스트가 표면에 드러내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텍스트의 이면을 분석하여 오히려 텍스트가 은폐하려는 것을 찾아낸다. 왜냐하면 텍스트에는 언제나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 말하지 않아야 하는 다른 어떤

1) 이 논문은 2008년 7월 14-16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개최된 아시아성서학회(SABS)에서 읽었던 논문 “Re-reading on Joshua 7-8: Is the Failure of Conquering Ai Really Because of Achan?”에 기초한 것이다.

2) 본문이 전달하려는 이데올로기 비평에 대한 연구로는 본인의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본 창 16장: ‘성’과 ‘계급’과 ‘인종’을 중심으로,” 「구약논단」23집 (2007년 3월), 85-102를 참조하라.

것이 있기”³⁾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클라인즈(D. J. A. Clines)는 오늘날 성서학도들은 “텍스트가 말하지 않는 것” 즉, “그들이 침묵하고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은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⁴⁾ 심지어 그는 성경 텍스트에 대한 주석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석에 대한 주석 즉 ‘메타 주석’을 통해 주석이 감추고 억제하고 숨기려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안한다.⁵⁾

본 논문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8장에 기록된 아이 성 정복 사건을 샘플로 하여 이 텍스트를 이런 방식의 비평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⁶⁾ 그리하여 이 텍스트의 이면에 숨겨져 있고, 더 나아가 텍스트가 은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결코 정경으로서의 본문에 어떤 문제나 하자가 있다는 전제로 출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종적인 본문의 가치를 전제로 출발한다. 더 나아가 최종적인 본문의 의도가 허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3) P. Macherey,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 (tr. Geoffrey Wa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85.

4) David J. A. Clines, ‘The Postmodern Adventure,’ David J. A. Clines and Stephen D. Moor (ed.), *Auguries: The Jubilee Volume of the Sheffield Department of Biblical Studies* (JSOTSup, 26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285.

5) 이를 위해서는 David J. A. Clines, “Metacommenting Amos,” *Interested Parties: The Ideology of Writers and Readers of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6-93쪽을 참조하라. 이 원리를 적용한 본인의 논문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 재해석: 히 11장 8-10의 해석에 대한 메타 주석,” 「구약논단」30집 (2008년 12월), 85-102를 참조하라.

6) 그 동안 이루어진 아이 성 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이 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고고학적 연구와 아간의 죄에 나타난 herem에 관한 연구였다. 전자에 관한 연구로는 Marquet-Krause and Callaway, *EAEHL* 1 (1975), 36-52; W. F. Albright, “The Israelite Conquest of Canaan in the Light of Archaeology”, *BASOR* 74 (1939) 11-13; J. A. Callaway, “Ai,”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1 (1975) 36-52; *Ibid.*, *The Early Bronze Age Citadel and Lower City at Ai (et-Tell)*, No. 2, (Cambridge, MA: ASOR, 1979), *Ibid.*, “New Evidence on the Conquest of Ai,”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7 (1968) 312-20. Trent C. Butler, *Joshua*, (WBC 7;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8. J. M. Grintz, “Ai Which Is Beside Beth-Aven,” *Biblica* 42 (1961), 201-16. D. Livingston, “Location of Biblical Bethel and Ai Reconsidered,”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3 (1971), 39-50. M. Noth, “Bethel und Ai,” *Palästina-Jahrbuch* 31 (1935), 7-29.

본문의 명백한 의도도 분명히 인정한다. 다만 그러한 본문의 이면을 살펴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텍스트의 생생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형태로서의 현재의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그 분석 대상으로 한다.⁷⁾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이 텍스트는 물론 여호수아서 전체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외한다.

여호수아의 초반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6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나안 동쪽 입구의 큰 성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였는지 박진감 넘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6장의 기사를 처음 읽은 독자들은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이 파죽지세일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 그러나 7장 1절은 그런 독자들의 기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해설’을 제공한다. 그 해설이 1절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이다.

이 해설은 그 위치와 내용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해설은 아이 성 사건을 보도하는 7-8장 본문의 초두에 제공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독자들에게 텍스트의 등장인물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⁸⁾ 그래서 독자들은 이 해설로 아이 성 정복이 전개되기도 전에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⁹⁾ 한 마디로 이 해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후

7) 키스링(P. Kissling)은 본문의 최종 형태 비평(Final Form Criticism)이 본문을 ‘묘사된 그대로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Reliable Characters in the Primary History: Profile of Moses, Joshua, Elijah and Elisha* (JSOTSup, 22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2.

8) 호크(L. Daniel Hawk)는 이 해설은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취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독자들을 분리한다”고 하였다. *Joshua*, Berit Olam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110.

9) M.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NICOT (MI: Eerdmans, 1981), 121.

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감케 하는 ‘복선(伏線)’이다. ‘복선’은 독자들로 하여금 텍스트의 의도대로 텍스트를 이해하게 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문학적 장치이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해설의 눈으로 이어지는 텍스트를 읽어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등장인물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의 시도와 실패에 동정을 느끼며, 이어지는 내용이 그 복선대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과연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 성 정복에 실패한다. 야훼는 실패의 이유를 몰라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바친 물건’ 즉 헤렘을 “취하고 도적하였기”(11절) 때문이며, 그 헤렘을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13절)고 확인해 준다. 그리하여 7장의 후반부에서 여호수아는 야훼의 명령대로 야간을 차단하고 국가적인 애도를 가진 다음에(16-26절), 8장에서 다시 아이 성을 공격하여 승리한다. 이러한 ‘갈등’과 ‘해소’의 내용 전개는 7장 1절의 해설이 사실이었음을 독자들에게 확인시켜 준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이 성 정복에 실패한 것은 야간 때문이요 8장에서 아이 성 정복에 성공한 것은 야간의 죄를 해결하고 정결케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7장 1절의 해설이 독자들로 하여금 아이 성 정복의 실패는 야간이 헤렘을 훔친 때문이라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이해는 그 본문에 대한 주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한다. “성경 어디에도 아이 성 공략의 패배가 정탐꾼의 그릇된

10) 야간의 범주를 이렇게 문단의 초두에 제공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전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패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한 것에 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한다. 본문의 이러한 의도는 분명하고도 명백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본문의 의도를 넘어 전쟁 패배의 사실적인 이유들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정보 때문이라거나 인솔 부대장의 작전 착오 때문이라는 기사는 없다. 오히려 그 책임을 탈취물 중 일부를 몰래 가로챈 아간에게 돌리고 있다.”¹¹⁾ 데이비드 하워드(D. Howard)는 제2차 시도가 성공한 것도 “승리는 아간의 죄로 더럽혀진 그 백성을 정결케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¹²⁾고 하였다. 그러나 본 논고는 바로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첫째, 왜 여호수아는 아이 성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아간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둘째, 만일, 아이 성 정복의 실패가 진정 오직 아간 때문 만이라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제2차 아이 성 정복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전투 태세가 제1차 아이 성 정복 때와 왜 그렇게 다른가?

셋째, 무엇보다도 제2차 아이 성 공격 시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1차 아이 성 전투의 전후 모습과는 현저히 다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1차 아이 성 정복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패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7장 2-5절의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래야 제2차 정복의 성공과 비교하여 그 진정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고는 아이 성 정복 패배의 원인에 대해 신학적 설명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7장 1절의 해설을 건너 뛰어 여호수아 7장 2-5절의 본문 그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패배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11) 목양서원(편), 「여호수아」,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6권) (서울: 바라서적, 1992), 195.

12) David M. Howard, Jr., *Joshua: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ume 5)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1998), 187.

2. 성전(Holy War) 텍스트로서의 여호수아 7장 2-5절의 특징

여호수아 7장 2-5절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2)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뵈엘 동편 뵈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4)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삼십육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달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데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텍스트는 간략하다. 언급된 내용은 다만 정탐꾼들의 보고와 제안, 전쟁 개시, 그리고 패배뿐이다. 야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 기사로서의 본문의 이러한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이 본문에는 야훼의 전쟁과 관련되어 언급되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없다.’ 이 사실을 다니엘 호크(L. D. Hawk)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한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땅을 주겠다는 선언도 없고…, 아무도 언약궤를 통하여 야훼께 상의하지도 않았다(민 14:44). 여호수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공격 시에도 없다.”¹³⁾ 그렇다. 이 본문에는 전쟁 수행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없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 수행에 대해 야훼께 물었는지, 어떤 전략적인 준비를 했는지, 심지어 그가 백성들에게 올라가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도

13) Hawk, *Joshua*, 113; Butler, *Joshua*, 79 참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 정탐꾼들의 이름도 없고 특별한 위임도 없다(수 2:9-11; 사 5:8-6 참조 민수 13:30; 14:6-9; 21:34). 가장 중요한 공식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민 14:8; 21:34; 신 1:25; 수 2:24; 사 18:10)가 없다. 그리고 이 해설에는 정탐꾼 보고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덧붙여진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나 그가 정한 지도자에 대한 언급 없이 전략을 짰다.”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침묵과 생략이 그야말로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억제된 것인가? 흔히 논리학에서는 주어진 텍스트에 무엇이 ‘없는’ 이유를 그 텍스트 자체에서 추론하는 소위 ‘침묵으로부터의 논증’ (*argumentum e silentio*)은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무엇이 없는 이유는 무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결국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비평적 분석은 바로 그 ‘침묵’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침묵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해 내고자 한다. 본고는 그러한 분석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진행하기 위해 이 본문 여호수아 7장 2-5절에 나타난 내용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인접 본문에 나타난 내용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즉 같은 요소를 다루면서 여기 여호수아 7장 2-5절의 본문에 ‘없는 것’과 주변의 본문에는 ‘있는 것’을 찾아 비교해볼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이 본문에 나타난 이런 ‘부재의 특징’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더 분명해 질 것이다.

1) 명령하지 않는 장군 여호수아

전쟁 기사로서의 여호수아 7장 2-5절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장군 여호수아의 ‘명령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정탐꾼을 파송하고 돌아온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 외에는 전쟁 개시와 수행에 있어서 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본문에 묘사된 여호수아는 지휘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동적이다. 오히려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능동적이다. 우선 정탐꾼들의 말이 그러하다. 그들은 단순히 정탐한 사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 한다. 이는 버틀러의 말처럼 정탐꾼들의 보고 범위를 벗어나는 그

야말로 주제넘은 “예상치 못한 침언”¹⁴⁾이다. 물론 이 제안은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연전연승만 믿은 지나친 자만심에서 나온 잘못된 보고였다. …이 자만심 또한 실패의 한 요인으로 분명 작용했을 것”¹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정탐꾼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의 보고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들이 한 보고라고는 단 하나 ‘그들이 소수이니’ 라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정확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아니다. 그들은 아이 성의 백성 수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적을 알아보는 교만한 보고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그런 정탐꾼들의 교만한 보고와 주제넘은 제안을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과연 어떠하였는가?”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 보고와 제안을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본문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호수아의 반응을 생략하고 있는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정탐꾼들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to Joshua) 보고하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은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이다. 즉 이 본문에는 정탐꾼들의 ‘보고’와 백성들의 ‘군사 행동’ 사이에 응당 있었을 여호수아의 ‘명령’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어색하고 불완전하다. 여호수아에게 한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문장은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니라”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보내니라”이다. 이런 어색한 묘사 자체가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이 실패한 전투에서 지휘관 여호수아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텍스트의 의

14) Butler, *Joshua*, 79. 이 정탐꾼들의 제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이 성의 전체 인구가 1만 2천명이었으므로(수 8:25 참조) 실제로 그들의 군사 수가 대략 2-3천명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 성으로 보냈던 두 정탐꾼들처럼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2:34)는 신앙적 확신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야훼의 상세한 지시에 따른 순종으로 이룬 승리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군사력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15) 강병도(편), 『여호수아 · 사사기 · 룻기』, (호크마종합주석 6)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9), 148.

도적인 전략처럼 보인다. 즉 독자들로 하여금 정탐꾼들의 제안과 백성들의 선부른 군사 행동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인 것이다.

물론 이 본문을 정탐꾼들의 보고에 암시된 교만한 마음에 지휘관 여호수아가 편승하여 진정으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소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저 묵인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그 지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직무를 잊고 군사들을 방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배제된 결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은 결국 ‘명령하지 않는 장군’이다. 전쟁에 임하는 장군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군사들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정지는 반드시 장군의 명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이 아무리 이 실패한 군사 작전의 원인에서 여호수아를 면제하려고 해도 그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

전쟁에서 지휘관의 명령 없이 군사가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는 아이 성 정복에 성공한 제2차 시도에 나타난 본문 묘사와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이 2차 시도에서 본문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8:4)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8:8)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명령하고 군사를 보낸다.

군사 작전에 대한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실패한 1차 시도에서 텍스트는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성공한 2차 시도에서는 “여호수아가 용사 삼만 명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두 텍스트의 기록 방식은 현저하게 대조된다. 7장의 아이 성 정복 실패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은폐하고 있다. 반면에 성공한 제2차 시도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이러한 전략을 인지한 우리들

로서는 이제 아이 성 정복 실패에 있어서의 여호수아의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일찍 일어나지 않은” 장군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 2-5절을 주변의 다른 본문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만 여기에만 나타나지 않는 또 하나의 ‘부재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기상 습관과 관련된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새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이다. 이때부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지휘하는 지도자요 장군으로 그 직무를 감당한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기상 습관을 묘사하기 위해 동일한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것이 히브리어 **קָם**(샤감/일찍 일어나다)이다.¹⁶⁾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씻음을 떠나는 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수 3:1)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났다고 묘사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던 날에 관한 진술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수 6:12)로 시작하며, 일곱째 날은 “제칠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수 6:14)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았다고 기록한다.¹⁷⁾ 아이 성 정복에 실패한 제1차 시도 이후 야훼의 명령에 따라 헤렘을 취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

16) 이 단어는 어원상 ‘어깨’라는 의미의 세겜과 관련이 있다. 세겜의 원래 의미는 ‘짐승의 등에 짐을 싣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일은 대개 일출 직전 아침 일찍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다음을 참조하라. Ernst Kien,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Carta Jerusalem: The University of Haifa, 1987), 657.

17) 제 칠일에는 “새벽에”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으로 보아 다른 날보다 더욱 일찍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일보다 여섯 바퀴를 더 돌아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일찍 일어난 것이다.

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다”(수 7:16). 그리고 제2차 아이 성 공격 시에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8:10)갔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2차 아이 성 정복 때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자 아이 성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본문은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수 8:14) 급히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확인된 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 아이 성을 정복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는 유일한 경우가 제1차 아이 성 공격 때뿐이다. 이는 필히 여호수아가 실제로 제1차 공격 시에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구약에서 사감이 ‘일찍 일어나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그 용례 상 다 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첫째는 긴 여행을 위한 출발을 잘 하기 위해서이지만, 둘째는 어떤 예배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좋은 날에 출발을 잘 하기 위해서이며(창 22:3; 28:18; 출 24:4; 32:6; 34:4; 수 6:12; 삼상 1:19; 대하 29:20), 그리고 셋째는 출전하기 위해서이다.”¹⁸⁾ 여호수아서에 사용된 의미가 세 번째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첫 번째 아이 성 공격 시도가 있던 날에 곧 전쟁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여리고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룬 이후 장군 여호수아가 너무 성급하게 전장의 긴장감을 늦추고 그 자신이 태만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3) 야훼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장군 여호수아

제1차 공격 시의 ‘부재의 특징’ 중 또 하나 현저한 특징은 이 전쟁과 관련하여 야훼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호수아서는 매 번의 전쟁

18)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Jr.,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Bible Institute, 1980), 924.

때마다 확실한 보증의 말씀을 주셨다. 여리고 성을 탐지한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다”(수 2:24)고 하였다. 여리고 성 공격 시에도 야훼는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수 6:2)고 하였다. 제2차 아이 성 공격 시에도 야훼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8:1)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5개국 왕들과의 전쟁 시에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수 10:8)고 하셨다. 여호수아는 자기 군사들을 독려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수 10:19)고 하였다. 남부 지방 정복 시에도 내레이터가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수 10:30, 32절 참조)고 해설한다. 북부지방 정복 시에도 야훼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수 11:6, 8절 참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기사 중 야훼의 말씀이 없는 유일한 경우가 이 아이 성 제1차 공격 시이다. 말씀이 없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야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야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그것이 볼링(Boling)과 라이트(Wright)의 주석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탁을 묻기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¹⁹⁾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 직전 그에게 나타난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에게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수 5:14)라고 물었었다. 그래서 한 주석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와 달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상의하고 그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²⁰⁾

19) Robert G. Boling and G. Ernest Wright, *Joshua*, (Anchor Bible) (NY: Doubleday, 1982), 221.

20) 성경사건강해편찬위원회, 「여호수아 · 사무엘상」, (성경사건강해 제2권) (서울: 섬김출판사, 1996), 128.

는 사실에 있다고 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야훼께 묻는 시간도 갖지 못했을 수 있다.

물론, 야훼는 여호수아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 야훼의 말씀은 언제나 오직 ‘여호수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²¹⁾ 단 한 번도 야훼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제1차 공격 시에 야훼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은 이때 야훼와 여호수아 사이에 소위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 본문이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아마도 그 이유가 아간 사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야훼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소통 대상인 여호수아가 야훼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²²⁾ 그는 야훼의 말씀이 없을 때 훗날 다윗이 전쟁 시마다 그리했던 것처럼 “내가 올라가리이까?”라고 물었어야 했다.²³⁾ 만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다면, 야훼는 아간의 죄를 알리시며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야훼의 말씀도 없는 전쟁을 수행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야훼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사람에게 있지 아니한가?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함께 따르는 것이다.

4)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은 장군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 2-5절을 주변의 다른 본문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곳에

21) 수 1:1; 3:7; 4:1, 15; 5:2, 9; 6:2; 7:10; 8:1, 18; 10:8; 11:6; 13:1; 20:1을 참조하라.

22) 화이트(E. G. White)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 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다.” *The Story of Patriarchs and Prophets* (ID: Pacific Press Publishing House, 2005), 493.

23) 삼하 5:19; 삼하 19:34; 왕하 3:8; 대상 14:10 참조.

서는 나타나지만 여기에만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부재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본문은 정탐꾼들이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3절) 하므로 ”백성 중 삼천 명만 그리로 올라갔다”(4절)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후한 주변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였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싯딤을 떠날 때, 본문은 그가 “백성들과 더불어”(수 3:1) 함께 하였음을 강조한다. 6장에서 여리고 성을 공격할 시에는 여호수아는 시종 백성들과 함께 하며 명령하고 지시한다. 그는 칠일 동안 내내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았다. 그리고 제 칠일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수 6:16)고 명령하였다.

제1차 시도의 실패를 극복하고 아이 성 정복에 성공한 8장의 텍스트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강조한다. 8장 3-9절은 아이 성 정복을 나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략을 지시하고 준비하는 내용으로 한 문단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단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3절)로 시작하여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9절)로 마친다. 그러므로 이 문단은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시작과 끝에 강조하는 답관체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 텍스트가 그만큼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문학적 기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아이 성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8장 10-29절의 문단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수 8:10)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술선수범하고 있는지를 강조해 준다. 결국 8장

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아이 성 정복을 위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서, ‘백성들 가운데’ 잠을 자고, 마침내 ‘백성들 앞서’ 정복에 나섰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텍스트의 강조는 역설적으로 7장에서 실패한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텍스트의 자각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어지는 전쟁 중에도 백성들과 함께 한다. 예루살렘 주변 5개국 동맹국과의 전쟁을 보도하는 본문도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수 10:7)로 시작하여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수 10:15)로 끝난다. 특별히 남부 지방 정복 기사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립나로 내려가서”(수 10:29)로 시작하여 때 전쟁 때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함께 하였음을 강조하다가(수 10:31, 34, 36, 38)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수 10:43)로 끝난다. 북부지방 정복도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수 11:7)로 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전쟁 기사 중 오직 여기 제1차 아이 성 정복 때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사실은 매우 특이하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탐꾼들의 보고와 제안은 분명히 부주의한 자만심을 드러낸다. 여호수아 7장 2-5절은 여호수아를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최대한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들의 제안에 동의하여 명령을 하거나 적어도 허락하지 않은 이상 그들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는 없다.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도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수 7:3) 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 성 정복에 실패한 제1차 시도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내용을 정복 성공을 기록한 8장

에서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1차 시도가 실패한 주요 원인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는 텍스트의 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바꾸어 말해 여호수아 7:2-5에서 아예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5) 아무런 전략을 세우지 않은 장군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을 주변의 다른 기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이 시도에는 아무런 군사적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전략도 없이 전쟁에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모한 시도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백성들에게 자세한 지시를 하였다. 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종교적인 요구에서부터 심지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맨 법궤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였다(수 3:2-6).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군사’와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주어졌다(수 6:3-5). 물론 이 모든 지시 사항은 야훼께로부터 받은 내용들이다. 여호수아는 이 지시 사항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서 그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점검하고 확인한다.

제2차 아이 성 정복 시에는 매우 치밀한 군사 작전이 시도되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가나안 전쟁 중에 군사전략이 이렇게 상세히 보도된 것은 이 경우가 유일하다. “이에 여호수아가...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 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좇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수 8:3-8). 이것은 대단히 치밀한 ‘유인 및 매복 작전’이다.

주목할 것은 이 유인 및 매복 작전은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계획한 것이었다. 그만큼 이 작전은 면밀하고 치밀하며, 이것을 명하는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비장하다. 그는 이 작전을 지시하고 군사들을 보내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수 8:7)고 확신을 주었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수 8:8)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제1차 공격 시에는 “백성 중 삼천 명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수 7:4)가 전부이다. 지휘관도 없이 전략도 없이 백성들이 무모하게 올라간 것이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전쟁에서 전략을 세우는 이는 지휘관이다. 전략의 부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휘관의 몫이다.

3. 요약 및 결론

여호수아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주변의 다른 본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이 다른 전쟁 기사에 나타난 그의 모습과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이 본문에는 충실하고 예민한 전쟁 지휘관으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우리가 발견한 그의 그런 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중지하라는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소극적인 묵인 내지는 허락을 하였을 수는 있다. 둘째, 그는 전쟁이 있던 그 날 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것은 전장에서 예민해 있어야 할 지휘관의 마음이 나태하여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그는 이 전쟁에 대해 야훼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 넷째, 그

는 다른 전쟁에서와 같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선두에 서서 지휘하지도 않았다. 다섯째, 그는 이 전쟁을 위해 아무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종합할 때 이 전쟁 실패의 책임에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면제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7장의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이 전쟁 캠페인에서의 여호수아의 실수를 은폐하고 있다. 7장 1절의 해설이 독자들로 하여금 아간의 죄에 주목하게 만든다면, 이어지는 2-5의 텍스트는 전쟁 지휘관으로서의 여호수아의 허물과 실수에 대한 생략과 침묵으로 이 캠페인 실패에 대한 여호수아의 과를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학적 전략도 여호수아의 실수를 온전히 가릴 수는 없다.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비평적 연구를 통해 여호수아의 실수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아이 성 정복 실패는 결코 아간의 죄 때문만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 아간의 죄가 야훼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전쟁에 나서기 이전에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휘관 여호수아에게 있다.²⁴⁾ 텍스트에 대한 이런 비평적 분석은 텍스트의 의도를 넘어 사건의 실체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아이 성 정복의 실패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도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 문제는 아간이 아니다. 그런 문제는 어느 공동체나 있다. 진짜 문제는 그런 죄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도자의 나태함과 교만이다.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지도자, 백성과

24) 제차 아이성 정복 실패 이후 여호수아는 야훼에게 이렇게 아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 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뿐 하였나이다”(수 7:7). 이는 수사학적 질문을 통한 대단히 거친 항변이다. 이런 항변을 근거로 과연 그렇게 태만한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질문은 우선 독자들에게 등장인물인 여호수아가 아간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이런 이해는 ‘피상적인 독자들’(cursor reader)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논문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읽는 좀 더 주의 깊은 독법은 이 질문을 통해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허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함께 하는 지도자,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지도자, 무엇보다도 야훼께 겸손하게 물어보는 지도자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지도자는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올 때 누가 야간인지를 찾기 이전에 자신이 그 위기를 간파하고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자와 백성이 소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지도자 여호수아의 실패한 모습이 그의 위대함을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실패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의 성공은 더욱 빛을 발한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야간을 처단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번의 실패 이후에 곧 바로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여 1차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 성 공격에 나섰다. 그는 술선수범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면밀한 전략을 세워, 정확히 지시하고 명령하였으며,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앞에 서서 야훼의 명령을 따라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다. 위대한 리더십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4. 참고문헌

- 강병도(편), 「여호수아·사사기·룻기」, (호크마 종합 주석 6) (서울: 기독지혜사, 1989).
- 김상래,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본 창 16장: ‘성’과 ‘계급’과 ‘인종’을 중심으로”, 「구약논단」23집 (2007년 3월), 85-102.
- _____,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 재해석: 히 11장 8-10의 해석에 대한 메타 주석”, 「구약논단」30집 (2008년 12월), 85-102.
- 목양서원(편), 「여호수아」, (트리니티 말씀대전 제6권) (서울: 바라서적, 1992).
- 성경사건강해편찬위원회, 「여호수아-사무엘상」, (성경사건강해 제2권) (서울: 섬김출판사, 1996).

- Albright, W. F., “The Israelite Conquest of Canaan in the Light of Archaeology”, *BASOR* 74 (1939) 11–13.
- Boling, Robert G./Wright, G., Ernest, *Joshua* (Anchor Bible) (NY: Doubleday, 1982).
- Butler, Trent C., *Joshua* (WBC 7;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3.
- Callaway, J. A., “New Evidence on the Conquest of Ai”,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7 (1968) 312–320.
- _____, *The Early Bronze Age Citadel and Lower City at Ai (et-Tell)*, No. 2, (Cambridge, MA: ASOR, 1979).
- _____, “Ai,” *Encyclopedia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Holy Land* 1 (1975) 36–52.
- Clines, David J. A., “The Postmodern Adventure”, David J. A. Clines/Stephen D. Moor(ed.), *Auguries: The Jubilee Volume of the Sheffield Department of Biblical Studies*(JSOTSup, 26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_____, “Metacommenting Amos”, *Interested Parties: The Ideology of Writers and Readers of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6–93.
- Grintz, J. M., “Ai Which Is Beside Beth-Aven”, *Biblica* 42 (1961), 201–216.
- Harris, R. Laird/Archer, Gleason L. Jr./Waltke, Bruce K.,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Bible Institute, 1980).
- Hawk, L. Daniel, *Joshua* (Berit Olam)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 Howard, David M., *Joshua: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ume 5)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1998).
- Kissling, P., *Reliable Characters in the Primary History: Profile of Moses, Joshua, Elijah and Elisha* (JSOTSup, 22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Klen, Ern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for Readers of English* (Carta Jerusalem: The University of Haifa, 1987).
- Livingston, D., “Location of Biblical Bethel and Ai Reconsidered”,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3 (1971), 39–50.
- Macherey, P., *A Theory of Literary Productio* (tr. Geoffrey Wa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 Noth, M., “Bethel und Ai”, *Palästina-Jahrbuch* 31 (1935), 7–29.
- White, E. G., *The Story of Patriarchs and Prophets* (ID: Pacific Press Publishing House, 2005).
- Woudstra, M. H., *The Book of Joshua* (NICOT) (MI: Eerdmans, 1981).

검색어

수 7장 2-5절

수 7-8장

아이 성

아간

여호수아

침묵과 생략

비평적 분석

Is the Failure of Conquering AI really only because of Achan?

– Focused on Critical Analysis on Joshua 7:2-5

Sang-Lae Kim, Ph.D.

Professor, College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Joshua 7 describes why and how the Israelites failed to conquer the city of Ai when they first tried. It appears that the chapter clearly depicts the reason as the fault of Achan. But if the sin of Achan is the only reason, the second attempt, after punishing Achan to death, must be the same with the first. But the aspect of second attempt portrayed in chapter 8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first in 7:2-5. It means that Achan's case

www.kci.go.kr

is not the only reason.

Comparing the text of Joshua 7:2–5 with that of surrounded chapters, it is clear that the portrayal of Joshua is remarkably different from that in other battle accounts. In other words, this particular text shows no sign of Joshua being a dedicated, sharp warrior. The followings are the images of Joshua we have discovered. First, he did not order any commands to move out or withdraw. He merely kept silent or approved hesitantly. Second, he did not rise early in the morning unlike the other days. This conveys an impression that the mind of the commander in chief was indolent in the time when he should have been sensitive in the field. Third, he was not with the people as in the other battles, nor did he lead out. Fourth, he did not set up any strategy for the battle. Fifth, he did not ask for YHWH's guidance for this battle. Combining all these facts, we are able to conclude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failing this battle is on Joshua.

However, the text of Joshua 7 is deliberately masking Joshua's mistakes in this campaign. First of all, Joshua 7:1 makes the reader focus on Achan's sin. There is no doubt that Achan's sin was a serious problem among the Israelites, YHWH's covenantal community. Yet the way Joshua 7 is written shows how it is trying to hide Joshua's mistake in relation to Achan's problem. In the following text, 7:2–5, Joshua is completely left out. However, even this literary strategy could not wholly cover Joshua. Critical analysis of the text helps u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account more clearly beyond the intention of the text.

Key words

Joshua 7:2-5

Joshua 7-8

city of Ai

Achan

Joshua

Silence and Ellipsis

Critical Analysis

- 투고일: 2012년 10월 05일
- 심사일: 2012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05일